



올 여름 북캉스 키워드는 'H.O.T'

올 여름 북캉스는 'H.O.T'와 함께. 책(북)을 읽으며 휴가(비캉스)를 보내는 것을 '북캉스'라고 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책을 읽으며 사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 휴가 키워드가 'H.O.T'로 선정되면서 눈길을 끈다.

'H.O.T'는 그룹 'HOT'가 아니라 '벽돌책(Heavy)', '원작(Original)', '여행과 치유(Travel & Therapy)'를 의미하는 약자다.

예스24는 1일 올 여름 서점가의 북캉스 키워드로 'HOT'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스24 관계자는 "해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을 만한 장편소설이나 화제를 모은 작품의 원작소설을 가져가"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인문분야는 2022년 5~6월 대비 7~8월 증가율이 각각 25%, 6.9% 증가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벽돌책(Heavy)'과 장편소설의 관심이 늘었다. 사실 휴가라 해서 가볍고 속도감 있는 책만 읽는다는 것은 예전 이야기다. 북적북적한 휴가지 대신 호텔이나 집에서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즐기며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 독자들도 많다.

예스24의 집계 결과를 보면 벽돌책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보통의 책 두께와 달리 벽돌책은 7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말한다. 대표적인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들 수 있다.

'코스모스'는 지난달 3주차까지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균, 쇠'는 7월 인문 분야 월별 베스트셀러 9위, 4주차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13위를 기록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우주의 탄생을 비롯해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등을 흥미롭게 기술했다.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저명한 과학자

H Heavy 벽돌책
O Original 원작
T Travel·Therapy 여행과 치유

예스 24 여름 독서시장 분석 장편·원작소설, 인문서 인기

하지만 저자는 난해한 개념을 명쾌하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수 백장의 사진과 일러스트는 읽는 맛을 더해준다.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는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담은 책이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등의 질문을 생물학과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학문의 융합을 매개로 이야기한다. 유발 하라리(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 교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과학자가 역사의 큰 질문을 탐구하고,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한다.

이밖에 에이모 토울스의 장편 '모스크바의 신사'의 판매량도 7월 첫째주 전주 대비 100%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휴가철과 맞물려 인기를 끌었다. 현대적인 배경과 매력 있는 인물을 등장시켜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올 여름에는 드라마와 영화 흥행에 힘입어 원작 소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휴가철에 가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당연히 소설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와 맞물려 원작인 소설과 비교해가며 읽으려는 독자들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예스24에 따르면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원작 소설 '마당이 있는 집'은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7월4~5주차 공포/스릴러 분야 베스트셀러에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드라라는 지난 6월 첫 방영 후 전주 대비 판매량이 약 7.5배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첫 방영 이후 5월 대비 6월 판매량이 39배 증가한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행복배틀'의 원작 소설 '행복배틀'도 7월 3~4주차 공포/스릴러 베스트셀러 순위에 각각 5위와 9위에 올랐다.

휴식을 테마로 한 도서들도 서점가에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재충전을 위한 책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독자들을 겨냥한 기획으로 보인다.

예스24는 김연수 작가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와 마거릿 케네디의 '휴가지에서 생긴 일'을 추천했다.

'너무나 많은 여름이'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도에서부터 2023년 6월 창원까지 서점, 도서관에서 만난 독자들을 대상으로 낭독했던 20편의 단편 소설집이다.

'휴가철에 읽으면 좋은 서스펜스' 소설인 '휴가지에서 생긴 일'은 영미 문학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마거릿 케네디의 소설이다. 1947년 여름, 영국의 해변 휴가지 콘월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eBook 구독서비스 크레마클럽의 이용률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7월 크레마클럽 방문자 수 및 다운로드 건수는 전월 동기 대비 각각 29.5%, 75.5%로 증가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인문 분야 벽돌책, 드라마 및 영화의 흥행으로 원작 소설, 재충전을 위한 휴식 테마의 소설들이 올 여름 서점가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으로 받는 청렴 교육 '청렴한 家'

'베리햇오븐' 다음 달 6일 광주아트홀... 이달까지 참가 신청

공연제작집단 '베리햇오븐'은 다음 달 6일(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청렴교육 연극 쇼케이스 '청렴한 家'를 선보인다. 참가 신청 기간은 2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광주전남권 공공기관 및 공기업 소속 청렴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연극은 '지루하고 뻔한 법정의무교육은 그만, 연극으로 즐기자'는 슬로건 아래 전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의 자문을 받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부모님, 국어 선생님이 된 딸과 공시생 막내까지... 3대가 공직자 길을 걸어

은 '가짜 집안에 날티 나는 예비 사위 '박길'가 등장하며 작품은 시작된다. 청렴이라는 기준 하나로 살아온 가짜 집안이지만 예비 사위에 게 수의계약을 밀어줄지 고민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관계자는 "청렴의무교육이 연극을 통해 진행된다면 지루함은 줄고 교육의 성과는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생한 상황 연출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청렴, 부정부패 등의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구급 폼 신청, 자세한 내용은 베리햇오븐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괜찮아 힘내렴' 시의 위로

박희홍 시인 다섯번째 시집 발간... 삶의 지혜·조언 등 담아

"연필을 놓지 않으려는 끈질김이 필요한 것이 글쓰기란 생각을 한다. 글쓰기가 업(業)이 아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즉 절제된 생각과 언어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일이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 행복해지니까 씬 없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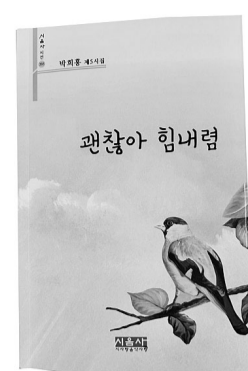
시인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를 쓴다. 내면에 떠오르는 단상을 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박희홍 시인은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절제된 생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 시인이 최근 다섯 번째 시집 '괜찮아 힘내렴'(시음사)을 펴냈다.

제목에서 보듯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괜찮다며 힘내라고 독자들을 향해 말을 건다. 모두 100여 편의 시들은 삶에 대한 지혜와 조언, 지난 시간에 대한 단상을 담은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설사 원상회복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설마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겠나/ 설사 그렇더라도 괜찮아/ 그들 탓하지 말게/ 시간이 지나면/ 어둠



의 터널을 벗어나겠지// 설사 그랬든, 설마 그랬든/ 설사면 어떻고, 설마면 또 어떡하리"('괜찮아 힘내렴' 중)

위 시는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건네는 파산의 위로를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주저앉지 말

라고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마지막이 속삭인다. 삶의 시란고난한 역경을 견뎌 온 이의 연륜이 묻어나는 경구다 다름아니다.

시인은 시집을 펴내게 된 이유에 대해 "근고하고 혼미한 시대에 우리 정신이 조금은 정제되어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너무 큰 욕심이었지만,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5시집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인은 계간 '대한문학세계'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꽃아기는 여우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 '아따 뭘 일로', '허허, 잠 그렇게', '문득 봄'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애들아, 문화전당 탐험해 볼래?

ACC, 19일~9월23일 초등 1~4학년 어린이탐험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ACC 어린이 탐험대'를 4회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ACC 어린이 탐험대'는 문화전당의 다양한 주제별(수목, 건축, 공공미술, 아시아) 장소를 찾아가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탐험하는 야외 투어 프로그램이다.

탐험대원에게는 안내서, 가방, 비밀편, 스티커를 제공하며 야외 투어를 마친 뒤엔 탐험 주제와 연계한 소품을 선택해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체험놀이가 이어진다. 열쇠고리에는 참여자 이름을 자수로 새긴 이름표가 함께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 26일, 9월 16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된다. 참여인원은 1회당 20명으로 총 80명이며 ACC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5000원.

이강현 전당장은 "어린이가 문화전당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체험놀이를 창의력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탐험대 활동 모습. <ACC 제공>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